

시민과 함께하는

# 야외 돛자리 무료영화상영



8.14(수) 오후 7시 30분  
사천종합운동장

8.30(금) 오후 7시 30분  
곤양면생활체육공원



8.21(수) 오후 7시 30분  
삼천포보조축구장

버스킹 공연 오후 6시 30분

추첨 이벤트 휴대용미니선풍기 (총 100개)

준비물 돛자리, 간식 등 (돛자리 선착순 무료제공 총 1,000개)

주최 사천시

주관 사천문화재단

문의 사천문화재단 055.835.6497

협찬 OFFICEWAY

SAMSUNG

삼성사무기

몽글로리

사천점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돛자리 무료영화상영 **오후 7시 30분**

**2019. 8. 14(수) / 8. 30(금)**

사천종합운동장, 곤양면생활체육공원



## 극한직업

■국내 15세관람가 ■출연 / 류승룡, 이하늬, 신하균, 진선규, 이동휘, 공명

■내용

낮에는 치킨장사! 밤에는 잠복근무!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불철주야 달리고 구르지만 실적은 바닥, 급기야 해체 위기를 맞는 마약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팀의 만형 고반장은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 수사에 나선다.  
마약반은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을  
하게 되고, 뜻밖의 절대미각을 지닌 마형사의 숨은 재능으로 치킨집은 일약 맛집  
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수사는 뒷전, 치킨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마약반에게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2019. 8. 21(수)**

삼천포보조축구장



## 말모이

■국내 12세관람가 ■출연 / 유해진, 윤계상

■내용

까막눈 판수, 우리말에 눈뜨다! vs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 '우리'의 소중함에 눈뜨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경성.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 때문에 가방을 훔치다 실패한 판수.  
하필 면접 보러 간 조선어학회 대표가 가방 주인 정환이다.  
사전 만드는데 전과자였다 까막눈이라니!  
그러나 판수를 반기는 회원들에 밀려 정환은 읽고 쓰기를 떼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들인다.  
돈도 아닌 말을 대체 왜 모으려 했는지 판수는 난생처음 글을 읽으며 우리말의 소중함에  
눈뜨고, 정환 또한 전국의 말을 모으는 '말모이'에 힘을 보태는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에 눈뜨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짝 조여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말모이'를 끝내야 하는데...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이 모여 사전이 되다.

